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52호 (2024-10)
발행일 2024. 11. 25.
ISSN 2092-7117

발행인 원장 직무대행 강해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¹⁾

곽윤경

빈곤불평등연구실 삶의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이 글에서는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사회통합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인은 사회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인식함. 둘째, 사회갈등 유형 중 진보·보수 간 갈등은 매우 심각한 반면, 남녀 간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함. 셋째,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및 정당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
- 사회갈등을 완화 혹은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통합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01. 사회갈등 심화

- ◆ 한국은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통해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갈등이 사회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박길성, 2013; 정해식 외, 2018).
- 국제 비교 결과, 한국인은 다른 국가 국민보다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 국제사회조사(ISSP)의 200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8.52점)은 헝가리(8.67점) 다음으로 사회갈등 수준이 높은 반면, 아이슬란드(4.01점)와 덴마크(3.57점)는 사회갈등 수준이 낮았음(Hertel & Schöneck, 2022).
 - 미국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 16개 주요 선진국 중 미국, 한국, 프랑스의 국민들은 사회갈등이 심각해졌다고 인식하였음(Silver et al., 2021).

1) 이 글은 곽윤경, 여유진, 이한나, 정세정, 강예은, 한겨레. (2023).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 - 공정성과 갈등 인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해졌다고 인식했지만, 갈등 유형별 심각성 인식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임.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에서 2013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심각해졌다고 인식함(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23).
 - 갈등 유형별로 볼 때, 진보·보수 간 갈등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세대 갈등과 남녀 간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인식함(하상응, 2021).
- ◆ 이 글에서는 인식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사회갈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사회갈등을 무조건적으로 없애기보다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갈등 정도 및 사회갈등 양상·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02. 사회갈등의 개념과 측정

- ◆ 사회갈등은 사회구조와 특정 맥락에서 희소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간 대립과 긴장, 그리고 이해관계와 신념, 가치관이 충돌하는 균열의 상태로 정의함.
- 여기서 활용한 문항은 <표 1>과 같음.

〈표 1〉 사회갈등 관련 변수

구분	문항	내용	활용한 자료 연도
사회갈등	사회갈등도	우리나라는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하다(1)~ 전혀 심하지 않다(4) 2018, 2019, 2021, 2022, 2023
	사회갈등 유형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3)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5)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6)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매우 심하다(1)~ 전혀 심하지 않다(4) 2018, 2019, 2021, 2022, 2023

주: 사회갈등 유형의 경우, 2018~2023년도에 공통으로 포함된 문항이면서 동시에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문항만을 선택함.

출처: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만 75세 이하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2014년부터 매년 수행되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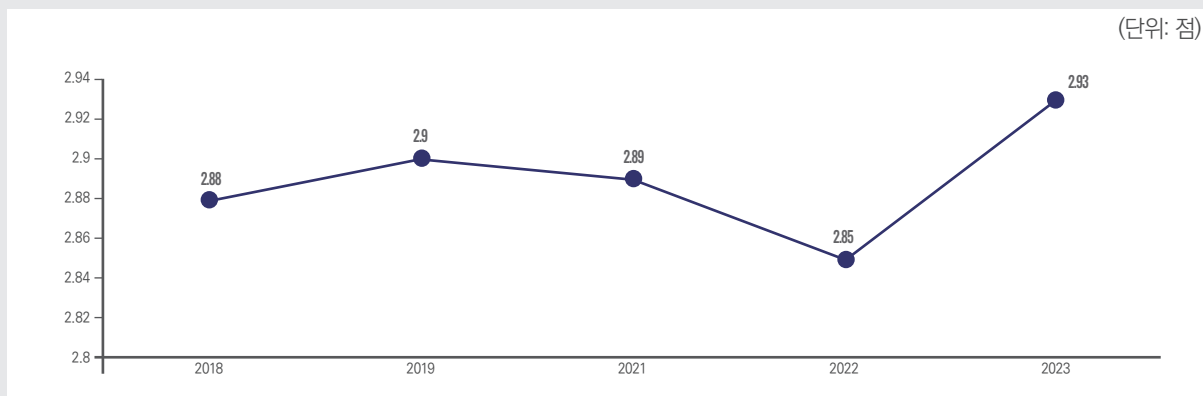
- 표본으로는 500개 집계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으로 추출하였으며, 집계구당 8개 가구를 계통추출 함.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대면 면접 조사를 함.
- 이 글에서는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문항을 활용하되, 사회갈등 관련 일부 내용에서는 2018~2022년 조사의 사회갈등 영역 지속 문항 자료를 활용함.
 - 2020년 조사 자료는 활용하지 않았음. 당시에는 코로나19 등의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 기존 조사와 달리 웹과 모바일을 활용하여 만 19세 이상~59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음. 즉, 조사 방식과 대상에 제한이 있어 기존 조사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글의 분석에서 제외함.
- 이 글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매년 반복 측정을 통해 얻은 시계열 조사, 즉 추세 조사(trend study)로, 패널 조사와 달리 사전에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두지 않음(남기성, 2008.9.25, p. 2). 따라서 연도별 점수 변화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낼 뿐 인과 관계가 아니며, 엄밀하고 정확한 비교는 다소 어려우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음(여유진, 2022, p. 2).

03. 인식 조사를 통해 본 사회갈등의 변화

◆ 2023년 한국인은 사회갈등이 심각해졌다고 인식함.

- 사회갈등도는 2018년 2.88점으로 측정된 이래 등락을 거듭하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과 2022년에 연이어 하락함. 2023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선언한 이후에는 사회갈등도가 소폭 상승하여 2.93점을 기록함.

[그림 1] 연도별 사회갈등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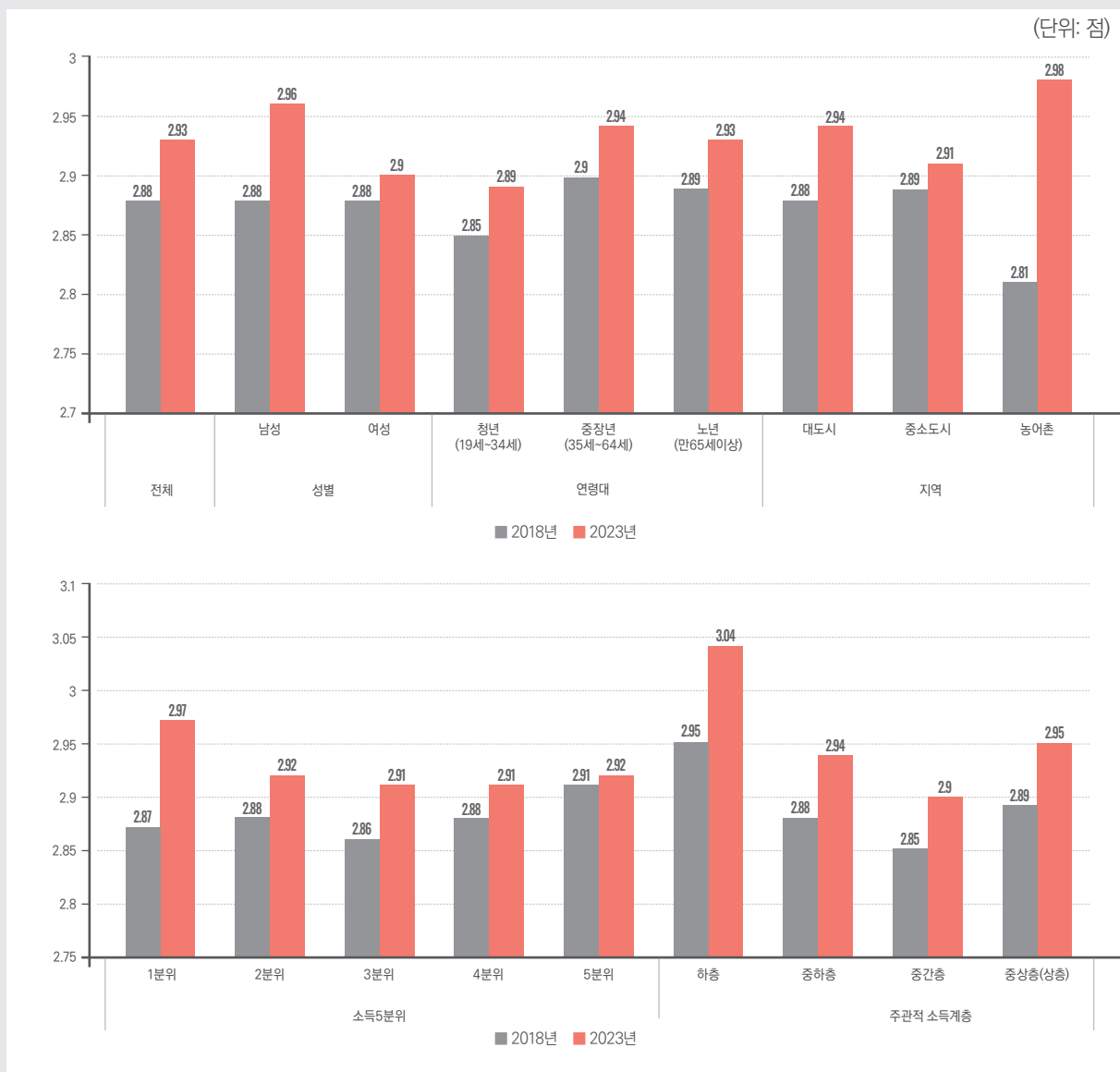


주: 2023년 사회갈등도는 ‘매우 심하다(1)~전혀 심하지 않다(4)’로 측정하였음. 다만, 2018~2022년 조사에서는 ‘매우 심하다(1)~ 전혀 심하지 않다(4), 모르겠다(9)’라는 보기문항으로 측정함. 여기서는 2023년을 제외한 이전 연도의 보기문항 중 ‘모르겠다(9)’로 응답한 값을 제외함. 역코딩하여 응답에 대한 평균으로 측정함.

출처: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2018년과 2023년 지역 및 주관적 소득계층별 사회갈등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 2018년 중소도시 거주자는 대도시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사회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함.
 - 농어촌 거주자의 사회갈등도는 2018년 2.81점에서 2023년 2.98점으로 상승폭이 가장 커짐. 따라서 2023년에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농어촌 거주자의 사회갈등도가 높아짐. 즉, 농어촌 거주자는 사회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은 집단의 사회갈등도는 2018년에 2.95점, 2023년에 3.04점으로 가장 높음. 즉,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은 집단은 사회갈등이 심각해졌다고 인식함.

[그림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갈등도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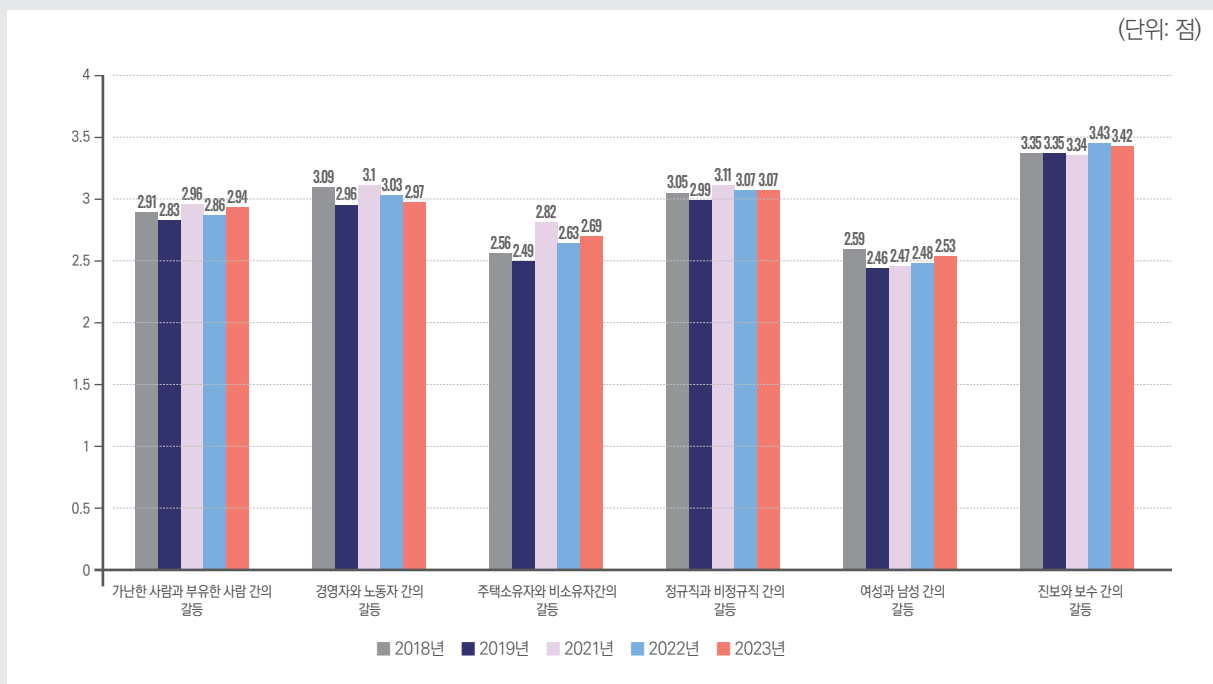


출처: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은 덜 심각하다고 인식함.

- 2018년 이래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가장 심각한 갈등 유형으로 인식함.
 - 이는 통계청(2024.3.26)의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한국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결과와 궤를 같이함.
 - 또한 과거의 여러 인식 조사에서(윤인진 외, 2009; 김미곤 외, 2014; 정해식 외, 2018; 김문길 외, 2019) 여당과 야당 혹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즉 정치 영역에서의 갈등을 유독 심각한 것으로 인식한 바 있음.
-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 다만,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에 여성·남성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당시는 미투 운동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내외에서 여성 인권과 젠더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은 해였음(이종임 외, 2019). 따라서 조사 응답자들이 다른 때보다 해당 질문에 대해 더 심각하다고 답했을 가능성이 높음.

[그림 3] 사회갈등 유형별 인식 변화



주: 각 연도에 공통으로 포함된 문항이면서 동시에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문항만 선택함.

출처: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정치 영역의 갈등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 의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할 의향이 없는 사람은 71.41%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다음으로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 연애 및 결혼을 할 의향이 없는 사람은 58.20%로 절반을 넘었고, 마지막으로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의 술자리에 함께할 의향이 없는 사람은 33.02%로 나타남.
- 집단별로는 여성, 노년층, 중졸 이하, 소득 1분위 집단 그리고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술자리, 연애 및 결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같이 할 의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 의향(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단위: %)

구분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의 술자리		*)	연애 및 결혼		*)	시민·사회단체 활동		*)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66.98	33.02		41.80	58.20		28.59	71.41	
성별	남성	71.37	28.63	***	46.10	53.90	***	31.63	68.37	*
	여성	63.15	36.85		39.15	60.85		28.51	71.49	
연령대	청년	72.03	27.97	***	48.19	51.81	***	33.75	66.25	***
	중장년	67.81	32.19		43.38	56.62		31.17	68.83	
	노년	58.08	41.92		31.36	68.64		20.32	79.68	
학력	중졸 이하	51.53	48.47	***	28.55	71.45	***	17.06	82.94	***
	고졸	66.85	33.15		44.40	55.60		31.86	68.14	
	대졸 이상	72.70	27.30		45.51	54.49		32.56	67.44	
소득 5분위	1분위	60.00	40.00	***	38.63	61.37	**	25.94	74.06	***
	2분위	62.37	37.63		39.90	60.10		27.53	72.47	
	3분위	71.07	28.93		43.34	56.66		31.36	68.64	
	4분위	72.37	27.63		44.74	55.26		30.93	69.07	
	5분위	72.55	27.45		48.11	51.89		36.20	63.80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60.63	39.37	***	36.75	63.25	**	22.05	77.95	***
	중하층	64.98	35.02		40.16	59.84		26.42	73.58	
	중간층	69.78	30.22		45.60	54.40		34.38	65.62	
	중상층(상층)	73.97	26.03		45.21	54.79		32.88	67.12	

주: * p<.05, ** p<.01, *** p<.001.

출처: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응답자들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 및 정당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봄.

- 사회갈등 해결 주체로 정부(56.01%), 국회 및 정당(22.04%), 국민 개개인(9.16%), 언론계(4.45%), 시민·사회단체(3.34%), 기업(3.05%), 교육계(1.00%), 종교계(0.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 사회갈등 해결 주체

(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213	56.01
국회 및 정당	871	22.04
기업	120	3.05
시민·사회단체	132	3.34
언론계	176	4.45
종교계	38	0.96
교육계	39	1.00
국민 개개인	362	9.16
전체	3,95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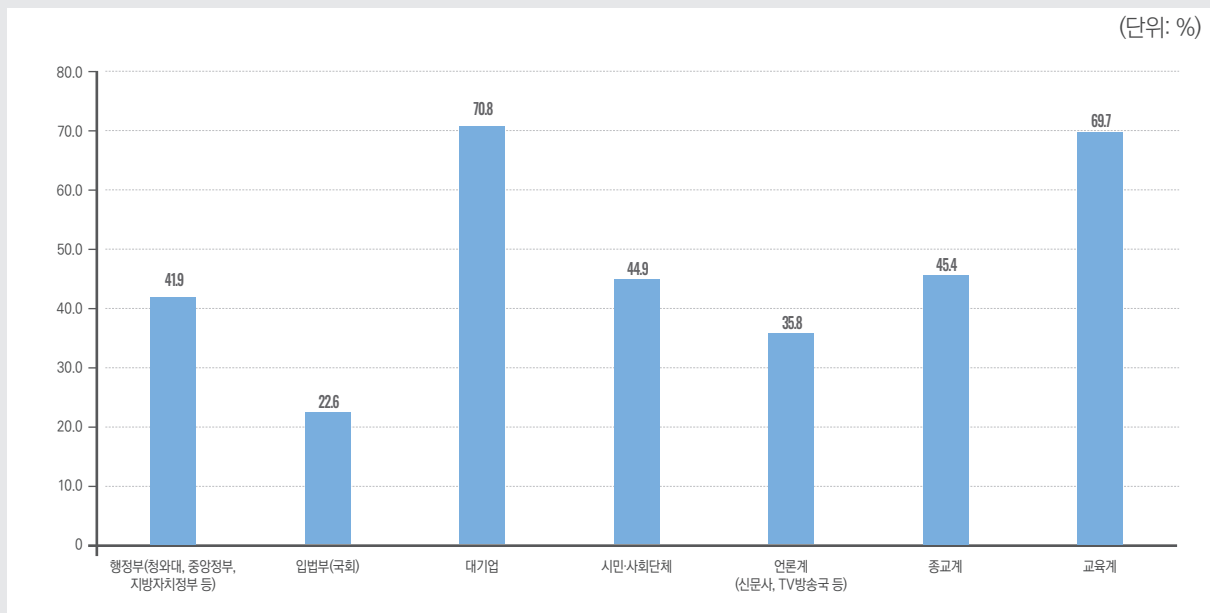
주: 1순위와 2순위를 물어본 복수 응답 문항이나, 1순위만 적용함.

출처: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그러나 사회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주요 주체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음.
 - 해결 주체 1위로 꼽힌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에 대한 신뢰도는 41.9%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2위인 입법부(국회)의 신뢰도는 22.6%로 낮음.
 - 해결 주체 6위로 꼽힌 기업은 신뢰도가 70.8%로 가장 높았고, 7위인 교육계의 신뢰도는 69.7%로 높음.

[그림 4] 기관별 신뢰도

(단위: %)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문항은 ‘매우 신뢰한다(1)~거의 신뢰하지 않는다(3), 모르겠다(9)’로 측정하였으나, 여기서는 ‘매우 신뢰한다(1)’와 ‘다소 신뢰한다(2)’ 응답치를 살펴봄.

출처: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04.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

◆ 우리나라 국민은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사회갈등 조정 및 관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조사 참여자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및 정당, 국민 개개인, 언론계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사회갈등 완화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함.
 -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하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갈등 관리 실태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음(이주형 외, 2014; 은재호, 2023).
 - 이러한 시스템은 공공갈등 관리를 체계화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공공 영역 외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관리, 예방, 조정할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음.
 - 따라서 갈등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시민이 참여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갈등 완화 및 관리를 위해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 및 정당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사 결과, 사회갈등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및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 우세하였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임.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이 더욱 요원하고 어렵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정부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부기관의 내부통제, 내부고발제도, 공익신고제와 같은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강정석고재권, 2016, p. 61).
 - 정기적으로 청렴 및 부패지수 등을 측정하여 부패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함(왕영민 외, 2022).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윤리적 기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충족시킴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뒷받침되도록 해야 함(김재일, 2017; 주오이시디대표부, 2017).

◆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소통 및 대화 채널이 필요함.

- 정치 성향이 다른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 긴장과 반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생각 및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조성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어려운대화연구소(Difficult Conversation Lab)의 실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실험에서는 논쟁적인 주제 혹은 예민한 사안으로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게 함(김동규, 2022). 비록 참여자의 대화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생기는 것을 발견함(김동규, 2022).

◆ 사회갈등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사회갈등 그리고 유형별 인식 수준이 매년 변화하기에, 정기 조사를 통해 변화를 포착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사회갈등 인식의 변동 양상을 진단하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회갈등 유발 요인을 파악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향후 사회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 수준의 갈등 관리를 하는 데 기여할 것임.

〈참고문헌〉

- 강정석, 고재권. (2016). 국민들의 정부부처 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경제포럼**, 9(3), 41-63.
- 곽윤경, 여유진, 이한나, 정세정, 강예은, 한겨레. (2023).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 - 공정성과 갈등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동규. (2022). **극한갈등 - 분노와 증오의 블랙홀에서 살아남는 법**. 세종서적.
- 김문길, 우선희, 곽윤경, 정해식, 이정윤, 김미곤. (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 사회통합 상태 진단**,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일. (2017).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열린 정부 추진전략**. 동아시아연구원.
- 남기성. (2008. 9. 25.). **패널조사의 개념과 분석** [통계세미나]. 2024. 6. 23. 검색,
https://sti.kostat.go.kr/coresti/site/board/BoardView.do?gmenu=3&rmenu=02&cmenu=0204&flag=pds5¬s_seq=609

- 박길성. (2013).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고려대학교 출판부.
- 여유진. (2022). 코로나19 발생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 **이슈애포커스**, 418, 1-8.
- 윤인진, 박길성, 이명진, 김선업, 김철규, 정일준. (2009). **한국인의 갈등의식 - 2007년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 결과 분석**.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왕영민, 진경애, 홍현진 (2022)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은재호 (2023) 갈등관리기본법(안): 쟁점과 대안. **KIPA Issue Paper**, 125.
- 이주형, 가상준, 임재형, 김강민, 김재신, (2014)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과 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조사**. 서울시: 국회예산정책처.
- 이종임, 홍주현, 설진아. (2019). 트위터에 나타난 미투(#Me Too)운동과 젠더 갈등이슈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4(2), 99-146.
- 이태진, 김동진, 박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성근, 류연규, 우선희, 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오이시디대표부. (2017. 3. 31.) **정부 신뢰와 공공 정책(요약)**.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9/view.do?seq=1292715&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 통계청. (2024.3.26) 2023 한국의 사회지표(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30089#:~:text=%EC%86%8C%EB%93%9D%C2%B7%EC%86%8C%EB%B9%84%C2%B7%EC%9E%90%EC%82%B0%2C%20%EC%97%AC%EA%B0%80,6%2C762%EB%A7%8C%20%EC%9B%90%EC%9C%BC%EB%A1%9C%20%EC%A0%84%EB%85%84
- 하상응. (2021). 한국인의 갈등 인식과 배타성. **한국의 사회동향 2021** (pp. 349-358). 통계청 통계개발원.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23). **2022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https://www.kadr.or.kr/post/2022-%ED%95%9C%EA%B5%AD%EC%9D%B8%EC%9D%98-%EA%B3%B5%EA%B3%B5%EA%B0%88%EB%93%B1-%EC%9D%98%EC%8B%9D%EC%A1%B0%EC%82%AC>
- Hertel, F. R., & Schöneck, N. M. (2022). Conflict perceptions across 27 OECD countries: the roles of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collective stratification beliefs. *Acta Sociologica*, 1-19.
- Silver, L., Fetterolf, J., & Connaughton, A. (2021. 10. 13.). *Diversity and Division in Advanced Economies*.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1/10/13/diversity-and-division-in-advanced-economies/>

박윤경(빈곤불평등연구실 삶의질연구센터 부연구위원)